

고 현철해동지의 령구발인식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총고문인 조선인민군 원수 현철해동지의 령구발인식이 5월 22일 오전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국가장의식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총직함 총대혁명전사이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견실한 전우로 한생을 값높이 빛내이며 당과 수령을 일편단심 한마음한 뜻으로 따르고 받들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복무의 길에서 불멸의 공훈을 세운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저명한 정치군사활동가와 영결하게 되는 커다란 비애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가장의식장에 나오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국방성 지휘성원들을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고인의 령구가 안치된 4.25문화회관에는 조기가 드리워져있었다.

장의식장에는 조선인민군 특해공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고 현철해동지의 령구를 발인하는 의식이 있었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원수님께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고 현철해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장 존경하던 혁명선배이며 우리 군의 원로였던 견실한 혁명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하시며 고인의 령구를 메고 발인하시었다.

위대한 두분의 수령을 모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새 역사를 창조하던 영광의 시대로부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국력강화의 최전성기를 빛내여가는 오늘에 이르는 60년의 기나긴 세월 당건설과 무력건설,

혁명위업의 계승과 발전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특출한 공적을 세운 고 현철해동지와 작별하는 슬픔의 시각을 맞이한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비통한 마음을 누르며 4.25문화회관광장에 정렬해있었다.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경의를 담아 명예위병들이 고 현철해동지의 령구우에 성스러운 영광의 기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송엄히 덮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광장에 모인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고인에게 다시금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며 령구를 바래우시었다.

령구차는 고 현철해동지에게 송고한 경례를 표하는 조선인민군 군기종대와 명예위병대앞을 지나 모리제들의 호위를 받으며 거리에 나섰다.

연도에 늘어선 수많은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수도시민들은 한생 변할줄 모르는 혁명의 총대와 같이 당과 수령을 일편단심 받들어모신 참된 전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애국자의 귀감인 고 현철해동지와 영결하는 애석함속에 령구차를 전송하였다.

본사기자

고 현철해동지와 영결식 엄숙히 거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총고문인 조선인민군 원수 현철해동지와 영결식이 5월 22일 오후 신미리에국렬사릉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영결식에 참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국방성 지휘성원들을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렬사릉에는 조기가 드리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군기들과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려사릉

입구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고 현철해동지의 령구를 맞이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고인의 유해를 앞세우시고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 유가족들과 함께 려사릉에 오르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영결식에 앞서 신미리에국렬사릉에 안치된 려사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고 현철해동지와 영결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박정천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애도사를 하였다.

고 현철해동지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공화국인민이 드높은 신심과 활력에

넘쳐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가는 역사적인 시기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멸의 공훈을 한 저명한 정치군사활동가와 영결하게 되는 비통함을 담아 180발의 조총이 발사되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충심으로 존경하고 더없이 아껴오신 귀중한 혁명의 원로와 영결하는 슬픔을 누르시며 고인의 유해에 흠을 없으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에 흠을 덮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한평생 그 어떤 가식도, 변심도 없이 당과 수령을 신념으로, 량심으로, 의리로 받들어온 로혁명가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삶을 뜨겁게 회억하시며 비분을 금치 못하시었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묘에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혁명적인 생애와 불멸의 공적으로써 위대한 우리 국가의 역센 뿌리가 되어준 고 현철해동지를 추모하여 전체 영결식참가자들과 함께 목상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준엄한 선군길을 생각할 때면 우리 장군님의 그림자, 유능한 정치군사보좌관이 되어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총직하게 받들어진 현철해동지의 모습이 제일먼저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수령의

성스러운 려사속에 빛나는 혁명전사의 삶이야말로 가장 값높은 인생의 최고 정화이라고 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로혁명가는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나가지만 현철해라는 이름은 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히 기억될것이며 그의 고귀한 녀과 정신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당의 위업, 위대한 우리 국가와 공화국무력의 눈신강화발전과 더불어 영생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실하여온 견실한 혁명가 현철해동지는 위대한 수령의 한없이 고결한 추억속에, 주체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속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